

메꽃 흐드러지던 골짜기, 정원을 짓다

조경디자인 린(주) 대표 이재연

“10년을 준비했습니다.”

메딩골정원 조경공사 책임업체 선정을 위한 인터뷰 중 나온 발주처의 첫 마디였다. 세계 각국에 내로라하는 정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그들과 견줄만한 정원이 없을까 하여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하였다. 최초의 영감은 니체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두 시간가량 이어지는 인터뷰 내내 발주처의 정원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보았다. 전국 곳곳에 숨겨진 옛 정원과 사찰, 고국산천의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후세에게 유산이 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고 한다. 인터뷰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 단 한번도 가보지 않은 대상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미 완성된 정체불명의 정원 모습이 뇌 속에 몽글몽글 구름처럼 아른거린다. 대뜸 “저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가슴에서 흘러나왔고, 계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때가 2021년 8월 뜨거운 어느 날이었다.

[민초들의 삶 - 고향의 봄]

“한국정원의 초입에 뭔가 소박하고 한국적 감성이 배어 있는 정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고민 좀 해 주세요.”

발주처의 첫 번째 주문이었다. 한국정원은 세 개의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민초들의 삶’이다. 그리고 ‘민초들의 삶’을 구성하는 첫 번째 소정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토속적이면서 민초들의 감성이 배어 있는 그 무엇. ‘마을’, ‘고향’ 두 개의 단어를 서너 번 되뇌자 ‘고향의 봄’ 동요가 저절로 흥얼거려졌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렇게 국민 동요가 ‘민초들의 삶’의 첫 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양쪽으로 산세를 닮은 언덕을 만들고, 길은 살짝 굽어 짧은 골짜기 길을 끝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길 너머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개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진달래를 흐드러지게 심는다. ‘나무야,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그러면 죽여주는(?) 풍경이 나올 거야.’

식재 후 이른 봄* 기대했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복숭아꽃과 진달래꽃이 활짝 핀 4월의 어느 날 ‘고향의 봄’ 노래를 흥얼거리며 ‘고향의 봄’ 정원을 둘러보면 정원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다.

*메딩골정원은 다른 곳보다 기온이 많이 낮아 4월10일경 진달래가 흐드러진다. 복숭아꽃도 진달래꽃과 개화기가 약 일주일 겹치는데 4월 15일 전후이다(2024년 기준).

[민초들의 삶 - 서낭당]

“이 나무는 서낭목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300년은 족히 들었을 번개 맞은 회화나무를 마을 길목에 심자는 요청이었다. 이 회화나무는 현장에 투입되기 전부터 점지된 나무로 현장 출퇴근길에 가식되어 있었는데, 매일

출퇴근 때 보지 않을 수 없는 장소여서 늘 심는 시기만을 노리고 있었다. 빨레터 근처 길목이 딱 알맞은 자리였는데, 하필 공사차량이 수없이 지나다녀야 하는 곳이고 이 나무가 워낙 큰 대형목이어서 식재 시기 조정에 만전을 기했다. 결국, 한식 건물과 전체 식재 공사, 포장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날을 잡을 수 있었다.

수목 외피에만 겨우 붙어 살고 있는 줄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200톤 크레인과 저상 트레일러를 동원하여 나무를 바로 세운 채로 이동해 식재를 진행하였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으나 다행히 성공적으로 식재를 마칠 수 있었다.

도포자락을 펼치고 서 있는 근엄한 선비처럼 고고한 자세로 꼳꼳하게 세월을 지켜낸 마을 어귀의 회화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이미 문드러져 사라진 나이테는 도무지 셀 수 없는 무수한 시간 속으로, 검게 그을린 속살은 무슨 일을 겪어왔는지 가늠할 수 없는 과거로 나를 이끈다.

[민초들의 삶 - 남도돌담길]

“민초들의 삶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게 밭 아닐까요?”

고향의 봄 정원을 지나면 바로 한눈에 가득한 밭 정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언덕진 이 곳을 좀더 극적으로 연출하고 싶었다.

젊은 시절 나의 눈을 그득하게 채우고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 한 장면이 스치듯 떠올랐다. 이걸 실현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뚫다. 세 주인공이 가슴 한 칸에 응어리진 슬픔과 한을 청산도 돌담길에서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5분여의 롱테이크로 연출한 장면은 슬프지만 슬프지만도, 즐겁지만 즐겁지만도 않은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그들의 회한이 담겨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청산도의 돌담이 있는 밭길을 만들어 보자. 밭주처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바로 현장에서 땅을 고를 때 나오는 잡다한 돌들을 있는 대로 모았다.

”그냥 농부가 쌓은 것처럼 막담장으로 쌓아 주세요.“ 전문적으로 돌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막 쌓으라니. 실제로 농부들은 어떤 감각으로 쌓았을까? 몇 번이나 허물고 다시 쌓았다. 유봉과 송화, 동호가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내려올 것 같다. 가슴이 먹먹하다.

[선비들의 풍류 - 파청헌, 고샅, 청유원, 재예당]

“한식 건물에는 선비의 풍류를 담아 주세요.”

휘성건축은 김포 모처 한 기업의 한옥 겸 뮤지엄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한 인연으로 우리와 함께 메딩골 한국정원의 한식 건물을 짓게 되었다. 메딩골정원의 한식 건물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시멘트를 전혀 쓰지 않고 옛 조상들이 한옥을 지을 때 활용했던 공법을 총 동원하였다. 모든 담과 한옥, 그리고 못(연못) 또한 강회와 황토, 목재와 자연석 등을 이용하였다. 대문 현판, 정자의 명칭과 주련의 쇠구는 조선 제3대 왕인 이방원의 스승이었지만 벼슬을 멀리하고 은둔하며 살았던 ‘운곡 원천석 선생’의 시에서 가져왔다.

한국정원의 두 번째 주제 ‘선비들의 풍류’를 담은 정원의 시작이다.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원리가 담겨있는 두 개의 사각연못(함소연, 蓮蘇淵)은 흐르는 물에 잔을 띄우고 시를 읊던

유상곡수(流觴曲水)의 풍류를 담았으며, 담과 담 사이의 마을길은 ‘고샅’이란 아름다운 순우리말로 명칭하고 굽이진 선이 아름다운 소나무를 담 사이에 심어 골목길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선비의 맑은 정신과 그윽한 정취가 담긴 정원이란 뜻의 청유원은 계절마다 대표되는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으로 조성을 하였다. 사주문(무애문, 無碍門)을 열고 재예당 앞의 큰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돌을 어떻게 옮겨 놓았을까 의문이 드는 커다란 물고기바위 원주암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국정원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선비들의 풍류’ 마지막 정원에는 비어 있는 마당과 소나무 숲의 묘한 대조를 통해 청렴하고 겸손한 삶과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였던 옛 선비들의 청빈낙도(淸貧樂道)의 정신을 담고자 하였다. 이 마당은 공간적으로 비어 있되 동시에 쓰임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된다.

[한국인의 정신 - 경주출발]

“경주의 소나무 숲을 가 보시고 이 소나무들을 어떻게 심을 건지 고민해 주세요.”

이미 전국 곳곳을 다니며 정말 많은 나무들을 구입하여 일부 가식을 해 놓았고,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미리 선점해 놓은 나무들이 줄줄이 입고되었다.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때를 기다렸다가 수없이 밀려들어 왔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다.

발주처의 요청대로 경주에 있는 흥덕왕릉과 삼릉 소나무 숲을 다시 다녀왔다. 왕릉의 숲을 재현해 보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다시 가본 소나무 숲에서의 감회는 전과 전혀 달랐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연출해야 하는 현실에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이전의 감동은 사라졌고 소나무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심겨 있고 어떻게 스러져 있는가 하는 분석적인 눈으로만 숲을 보게 되었다. 다행히 조사에 동행했던 디자인 린의 임정훈 소장과의 이만수 반장의 노력과 헌신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지금의 근사한 숲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소나무 숲 하부에는 선비의 청렴함이 샘처럼 솟아 절개의 상징인 소나무 사이를 굽이치며 유유히 흘러 원주암 아래로 스며들도록 좁은 물길이 조성되었다. 소나무 숲부터가 ‘한국인의 정신’을 주제로 하는 세 번째 주제가 시작된다.

[메딩골 한국정원의 나무]

“내장산 단풍나무가 가장 예쁜 단풍이 드는 것 같아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메딩골 한국정원에는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산단풍나무, 팔배나무, 은행나무, 신나무, 화살나무 등등 각기 제 모습의 단풍 색을 달리하는 수많은 품종의 단풍 나무들이 심겨 있다. 그중 단풍나무의 대부분은 유목에서 커다란 성목까지 내장산 단풍의 품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에서 가을을 두 번 겪은 현재, 가을의 단풍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메딩골정원의 가을은 정말 아름답다.

뽕뽕이 밀식 재배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옷자란 단풍나무 수십 그루를 기존의 숲과 연결하여 더 깊은 숲으로 만들었다. ‘암자 가는 길’은 이렇게 시작되며 ‘길에서 떨어져 있는 깊은 산골의

숲길(경외, 經外)을 통해 암자까지 다다른다. 속세와 동떨어져 있는 암자인 경외암(經外巖)은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공간이 된다.

한국정원을 퇴장하는 언덕길 중턱에는 고로쇠 숲이 있다. 대부분이 우산 고로쇠 나무이다. 이끼 낀 자연석을 많이 이용한 이 숲은 제주도 중산간의 곳자왈 원시림 풍경을 모티프로 했다. 이 곳의 하부식물은 인근 숲에서 자라는 품종을 조사하여 유사종과 동종으로 식재를 해서 이 지역 숲의 고유한 풍경과 생태를 유지해 보고자 하였다. 경외암까지 한국정원 관람을 마치고 퇴장하는 길에 만나는 원시적 자연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곳이다.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는 정원을 만들어 주세요.”

자연스러운 정원이란 어떤 것일까, 아니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세상 가장 어려운 조경가의 끝없는 숙제인 것 같다. 늘 주변에서 보아온 정원과 다르게, 늘 곁에서 보아 온 아름다운 풍경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최대한 토종, 자생종 식물을 선정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DNA 속에 잠재된 찰나의 고향 풍경을 숨겨진 무의식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워낙 수입 원예종이 판을 치는 조경 수목시장인지라 자생종만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그래도...

한국정원은 무영원과 청유원을 제외하고 95% 이상을 토종, 자생종 식물로 정원을 만들었다. 정우조경의 이시희 대표가 놓은 계류(메딩내)와 연못(옥연, 玉淵), 폭포(효래, 曉來) 등은 과연 사람이 인위적으로 놓았나 싶을 정도의 놀라운 안목으로 만들어 낸 자연스러움의 극치이다. 그러니 이 자연미를 식재로 깨뜨려서는 안된다.

아무도 모를 험난한 식재 공사가 시작된다. “그 나무 더 숙여, 더 숙여, 좀 더 빼뜩게 심자.” 작은 나무, 큰 나무, 큰 꽃, 작은 꽃, 모든 식물들을 세우고 눕히며 그들이 원래 여기서 자란 것처럼 하나하나 맞추어 심으려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으로 화답해 준다. 원래 이곳에 있던 아이들처럼.

정원은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만든 이후가 문제이다. 하물며 이렇게 큰 정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유지관리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가 정원의 성패를 가른다. 정원을 가꾸는 길에는 세가지의 길이 있다. 손길, 발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길이다. 자주 만지고, 자주 가까이 가고, 자주 바라봐 주어야 한다. 아이를 돌볼 때와 같은 끝없는 관심을 주어야 한다. 정원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자연이다. 늘 살갓이 스치는 자연이다.

6만여 평의 이 메딩골정원은 그게 되겠냐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사명에 가까운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의 산물이다. 이 글에 언급된 것 이외에도 주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이 정원의 중심이 되는 큰 열개는 발주처의 정원에 대한 연구, 무한한 애착과 관심, 그리고 수년 간의 철저한 준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십년 조경일만 해온 나로서, 언제, 또 이런 조건의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고생한 만큼 대단히 매력적인 프로젝트였음을 고백한다. 이 프로젝트에 임하면서 다짐한 나만의 각오가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후회 없는 한판을 벌이자.’

그리고 정원이 완성되어 가는 지금 나에게 어떠한 후회도 남지 않는다.